올해 하안거부터 비구니 선원으로 개원하는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 전경. 사진= 박원구 기자

운문사 문수선원 개원

명성스님 30년 불사 비구니납자 20명 하안거 방부

비구니 교육의 요람인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가 문수선원(文殊禪院)을 개원한다.

운문사 문수선원(선원장 혜은)은 지난해 말 선방 요사채 화장실채 등 당우 5채를 건립하고, 5월 15일 계미년 하안거부터 비구니 납자들의 방부를 받는다. 문수선원 방부인원은 20명. 문의 054) 372~5090.

이번에 새로 건립된 문수선원은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바쳐온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불사이다. 스님은 30여 년전부터 운문사 전법 교육도량이 자칫 교(敎)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선원 터를 잡고 불사를 추진해왔다. 문수선원은 1997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5년만인 지난해 11월 4일 준공됐다.

선원장 혜은스님은 "이번에 선원을 개원한 것은 선찰로 유명했던 운문사의 옛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함이요, 선교일치 사상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문수선원에 제방의 수좌들과 사부대중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 추진

장육사, 기념관 건립 · '나옹정' 조성

영덕 장육사에 나옹선사 기념관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성역화 사업이 진행된다.

장육사(주지 종수스님)는 최근 경북 영덕군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예산 5억 여원을 들여 사찰 내 홍예교 보수 및 주차장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50평 규모의 전시실을 갖춘 나옹선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2천 5년까지 10억 5천여 만원을 들여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육사는 영덕군 창수면과 함께 2004년까지 7천 5백만원을 들여 나옹화상이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거목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일대 천여평의 부지에 소공원 '나옹정'을 조성키로 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통도사 문화지원 봉사회 경일헌 회장 취임 법회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1일 박물관 중앙괘불전에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박물관장 범하스님을 비롯한 문화자원봉사회 임원, 문화자원봉사회후원회 회원, 박물관 발전위원회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문화자원봉사회 제4대 회장으로 경일헌 회장이 추대되었다.관련 인터뷰 4면

또한 직전 회장 박해종 회장은 박물관회 회장으로 추대돼 문화자원봉사회와 후원회 등의 활동을 총괄해서 이끌게 되었다. 천미희기자

각 대학 복지학과 학생들 교계복지관서 실습 · 체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복지관인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 양정청소년회관 등은 각 대학 복지과 학생들을 복지관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돕고 있다. 개금복지관이 1월 6일부터 사전 교육을 마치고 4주간의 실습기간에 들어간 것을 비롯 양정청소년회관은 동의대, 대동애, 부산여자대학 등에서 참가한 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용호복지관 또한,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4주간 경성대, 동의대, 동부산대 등의 학생 9명이 참가한 복지실습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천미희기자

◇20일 문을 연 개금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려운 지역민과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금복지관 경로식당 새단장…무료급식 재개

개금복지관(관장 박용하)은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새롭게 단장하고 13일부터 첫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4인용 탁자 12개를 마련한 경로식당은 도개공 상가 1층에 문을 열었다. 13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친후 20일 정식으로 문을 연 경로식당 개원으로 좁은 경로당의 방바닥에 식판을 놓고 식사를 해왔던 노인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다. 새롭게 단장된 경로식당은 48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지역민과 노인들에게 개방되어 무료급식을 하게 된다. 후원문의 051)893-5034 천미희기자

1년간 도난 불교문화재 44건

경상북도 발표

경북 도내에서 지난 1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화재였던 것으로 드러나 불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도난당한 100여건의 문화재 중 44건이 불교문화재였다고 최근 밝혔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중 대부분은 개인이나 사찰이 보관해 오던 비지정 문화재였으나, 보물 959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을 비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문화재도 15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역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도난 문화재 중 회수된 경우는 조사기간 중 12건에 불과해 거의 되찾을 수 없다"며 "도난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영남지역 종무원 처우 열악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찰 1곳뿐

영남지역 9개 교구본사에 대해 사찰 종무원에 대한 처우를 판단할 수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대구 동화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화사는 지난해까지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 영남지역 교구본사 중 최초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찰이 됐다.

직지사, 은해사 등은 조만간 4대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6개 교구본사들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의 한 종무원은 "스님들에게 종무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에 대해 요청하면 그런 말을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는 반응을 보여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다"며 "종단이나 단위 사찰의 스님들의 인식 개선과 투자와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구기자

은하사, 우표에 담겼다 김해시, 기념우표집 발행

은하사 전경이 우표<사진>에 담겼다. 김해시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문화재와 특산품의 사진을 우표화해 한 권의 책으로 제작, 발간했다

'아름다운 김해' 기념우표모음집에는 액면가 190원 상당의 우표와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이번에 사진에 담긴 은하사는 가락국 수로왕 때 장유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1600년대에 중창된 김해를 대표하는 고찰이다.

천미희기자

고산스님 시집 펴내 쌍계사서 출판기념법회

전 조계총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칠순을 맞아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 · 들녘 · 값12000원>를 펴내고 11일 쌍계사에서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 쌍계사 강주 통광스님을 비롯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법회는 봉정법회에 이어 고산스님의 칠순을 기념하는 법회를 함께 열었다. <마음이 곧 부처다>에는 '나의 출가' '병' '이 무엇인고' '모두 놓아버리다' '얻을 바 없음' '깨달음의 노래' '열반의 노래' 등 116편의 시와 관음찬 이십송, 지장찬 이십송, 화엄산림 입재와 회향송 등이 부록으로 담겨있다.

천미희기자

◇고산스님 칠순기념 노래시집 출판기념 법회가 11일 쌍계사에서 열렸다.

축서사 화재…요사채 1동 전소

원인 전기합선 추정, 인명피해 없어

10일 아침 7시경 봉화 문수산 축서사에서 화재가 발생, 요사채 1개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에서 보물 제995호 축서사 보광전과 성도절 행사를 위해 절에 모인 신도들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요사채에 설치된 심야전기 조절용 콘트롤 박스의 합선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축서사는 의상대사가 신라문무왕 13년인 673년에 창건한 사찰로 6.25 전쟁때 소실돼 최근 새 건물로 단장한 바 있다. 박원구기자